



정부는 사과·배의 일시적 수입 조치에 대하여 검토한 바 없으며,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진행 중

<보도 주요 내용>

3월 11일(월)자 문화일보 「金사과·金배 누르기...예비비까지 투입해 할인 지원」 기사에서 “사과·배에 대한 일시적 수입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정부 내부에서도 검토를 했지만 결국 수입 보류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사과·배의 ‘일시적’ 수입 조치에 대하여 검토한 바 없으며, 수입허용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사과·배를 수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사과·배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수급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증거(scientific evidence)에 기반하여 진행 중입니다.

담당 부서	국제협력정책관 검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경희 (044-201-2071)
		담당자	사무관	박수현 (044-201-2074)

